

주도 주체에 따른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유형화 연구

정진철* · 서우석** · 임소현*** · 박보람* · 이영광* · 김채린*

*서울대학교 · **경인교육대학교 · ***서울시50플러스재단

요약

이 연구는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관련 개념 및 사례를 분석하여 진로교육 마을공동체의 개념을 정립하고 유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사례 선정 및 분석, 주도 주체에 따른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유형(안)에 대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처음 도출된 주도 주체별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유형(안)은 연구진이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관련 개념, 국내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것으로 6개의 유형이었으나, 1차 델파이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3개의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관련 개념 분석을 통해 진로교육 마을공동체의 광의의 정의 및 협의의 정의를 도출하였다. 진로교육 마을공동체의 공간적 규모는 지역과 마을의 개념이 혼용되고 있다는 선행연구의 주장을 기반으로 지역과 구분되는 촌, 동, 리 수준으로 규정하였다. 둘째,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관련 사례를 심층 면접한 결과,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유형은 주도 주체에 따라 1) 단위학교 주도형, 2)진로체험지원센터 주도형, 3) 마을교육협의체 주도형의 세 가지로 도출되었다.

이 연구에서 도출한 세 가지 유형을 기반으로 마을 특성을 반영한 진로교육 마을공동체의 도입 및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지원을 강화하여 마을의 편차를 줄이고 지역 및 마을의 행·재정적 지원 강화 및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주제어: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단위학교 주도형, 진로체험지원센터 주도형, 마을교육협의체 주도형, 유형화 연구

■ 이 연구는 2018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NRF-2019S1A5B8A02103273).

■ 교신저자: 임소현(sohyunim@seoul50plus.or.kr)

I. 서론

마을교육공동체는 교육의 제공 주체는 교사라는 고정된 인식에서 벗어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교육 주체가 서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도입되었다(윤혜정, 김희수, 2019). 마을교육공동체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진로교육에 있어서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서용선 외, 2015; 이희수 외, 2016). 마을교육공동체란 학생, 학부모, 교직원과 마을 내 다양한 주민들이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협력 및 연대하는 공동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김용련, 2015; 서용선 외, 2015; 최지인, 2017). 다양한 사회변화와 급변하는 직업세계의 변화를 마주하여 기존의 주입식 교육으로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는 가운데,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한 진로교육은 학생들에게 체험 및 현장 중심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매개체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김영철, 임진철, 장슬기, 2017; 김용련, 2015; 서용선 외, 2015; 이희수 외, 2016).

교육부(2018)는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을 통해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진로교육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진로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포럼’, ‘우리 마을 진로 길라잡이 지원단’ 등을 추진 및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마을교육공동체, 마을공동체, 지역사회 기반 교육공동체,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등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마을공동체는 아직 그 개념과 용어가 명확히 정립되지 못한 상태로써(김용련, 2015; 양병찬, 2018), 실제 교육현장에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진로교육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의 한계점 가운데 하나는 기존 연구에서 참여 주체를 학교와 마을에 한정하고 학교와 마을의 역할 및 관계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윤혜정, 김희수, 2019). 진로교육 마을공동체의 체제는 활동의 주체인 학생, 마을 주민, 학교에서의 진로전담교사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기관, 기업, 진로체험지원센터, 시·도교육청, 교육부 등을 포함하는 여러 요인들의 상호작용 결과물이다. 진로교육 마을공동체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다양한 구성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결과를 전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그러므로 진로교육 마을공동체의 개념 정립은 관련법을 제정 및 개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행·재정적 지원 확대, 연계-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운영의 질적 강화,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인식 확대 등에 있어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진로교육 마을공동체의 정착 및 활성화는 학교에서 고질적으로 겪고 있는 진로체험처 확보와 관련된 문제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

* 이 연구에서는 ‘공동체, 마을공동체, 교육공동체 및 마을교육공동체’의 개념을 분석하여 진로교육 마을공동체를 새롭게 정의하였으므로 이후 이 용어로 통일해서 사용함.

역 내 주민은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하는 직업현장이 존재하고 이는 학생들에게 진로 체험처로 활용될 수 있다(서용선 외, 2015). 이러한 진로체험처는 학생의 생활 반경 내에 존재하고 학생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로체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은 가까이에서 일을 통해 가치가 창출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어 자신의 진로와 사회를 함께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주도 주체에 따른 유형은 주제별 역할, 활동, 성과 등의 방향을 제안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관련 개념 및 사례를 분석하여 진로교육 마을공동체의 개념을 정립하고 주도 주체에 따른 유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마을교육공동체의 개념

Sanders(1970)는 공동체를 특정한 공간적 범위에서 관심과 가치를 공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써 근린 집단, 도시, 군, 지역 또는 존속 가능한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과 자원의 조합으로 정의하였고, 한준상(2003)은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와 서로에 대하여 심리적 유대감을 가지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지리적 경계가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Sergiovanni(1994)는 혈연 및 지연을 중심으로 구성된 종족 공동체(community of kinship), 공통의 삶의 터전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간 공동체(community of place), 상호 간의 긴밀한 결속에 기반한 정신 공동체(community of mind)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또한, Hillery(1995)는 공동체의 개념적 구성요소를 공간적 개념의 지역성, 공유된 목적과 가치 유대감의 정체성, 공동체 행위의 상호작용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공동체의 개념을 제시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공동체의 개념은 공간적 개념의 지역성, 심리적 유대감 같은 정체성, 구성원 간 상호작용의 세 가지 개념이 포함(홍영란 외, 2018)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마을공동체는 공동체의 개념에서 마을이라는 공간적 개념이 강조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마을이란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으로 정의되고 지방자치법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람의 공간으로써 흔히 촌, 동, 리로 명시하였다(이희수 외, 2016). 또한, 조영재 외(2013)는 마을을 걸어 다닐 수 있는 정도의 범위를 지닌 공동체로 보았다. 이와 더불어 마을공동체는 공동체의 개념과 같이 구성원 간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마을공동체를 정의함에 있어, 박병춘(2012)은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긴밀한 상호

작용을 명시하였고 변미리(2011)는 공간 및 상호 작용 상호작용을 명시하였다. 전대옥, 박승규, 최인수(2012)는 심리적 유대감이나 소속감을 마을공동체 정의에 명시하였고 최병두(2003)는 사회적 융합을 명시하였다. 한편, 마을은 지역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역이란 밀접한 상호작용의 흐름으로 묶여 있는 지리적으로 연속된 공간의 단위(행정안전부, 2017)이며 읍·면을 가진 군, 도·농통합시(복합시), 자치구 규모의 공간(한규호, 2009)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을은 지역에 비해 다소 좁은 지역이라는 공간적 개념과 더불어 마을주민들의 관계에 더욱 주목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마을공동체의 목적은 마을주민의 자치 실현을 통한 마을 문제 해결, 마을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서용선 외(2015)는 우리나라 마을공동체 선행연구를 종합하면서 이들 선행연구가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통한 마을 문제 해결에 주목하였음을 주장하였다.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마을공동체를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2013)는 마을공동체의 사업 목적을 지역산업형, 공유경제형, 지역교육형, 지역복지형 등으로 구분하여 마을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마을 문제 해결에 대한 강조는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마을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곽현근, 2018). 이러한 이유로 김주원(2016)은 마을공동체의 궁극적 목적을 공동체성 회복을 통한 마을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제시하였다. 즉 마을주민들 간의 정서적 유대감과 친밀감, 공동체 의식과 일체감, 소속감 등을 강화하여 이들의 행복,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마을공동체의 궁극적인 목적(하현상, 이기태, 2017)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교육공동체가 공동체의 개념에서 교육에 대한 공유된 가치, 목표를 강조하는 개념(박부권, 2002; 오혁진, 2006; Sergiovanni, 1992)임을 감안할 때,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이라는 공간 내에 교육에 대한 공유된 가치, 목표를 갖은 구성원들이 상호작용하는 공동체로 이해할 수 있다. 마을교육공동체의 배경은 학교교육의 보완 및 혁신에 있다(김영철 외, 2016; 서용선 외, 2015). 이러한 배경과 관련하여 김재철 외(2018)는 마을교육공동체를 마을이란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관계와 소통 그리고 경험을 통해 한 사회의 구성원인 민주시민으로서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의 가치를 습득하고, 개인의 창의성을 기르는 배움터로서 학교를 중심으로 마을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협력하여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하는 환경으로 정의하였고, 최지인(2017)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과 지역사회가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협력 및 연대하는 공동체로 정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한 지자체 조례 또한, 학생을 위한 학교와 마을의 연계 교육활동이 강조됨을 확인할 수 있다. 김용련(2015)에 따르면,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이 학생을 함께 키우는 것, 마을이 학생들의 배움터가 되는 것, 학생들을 마을의 주인으로 키우는 역할을 수행함을 제시하였다. 이는 마을교육공동체가 교육기부, 교육협동조합,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등 학교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마을의 장소를 교육공간으로 제공하며 마을교육공동체가 직접 학생들이 마을의 일원으로 될 수 있도록 교육함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교육의 변화와 확장, 즉 학생 대상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최지인, 2017). 또한,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 교육 과정 참여, 배움터 제공, 직접 교육의 세 가지 활동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2. 진로교육 마을공동체의 개념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진로교육의 정의는 교육 대상, 목표, 제공 주체 및 활동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진로교육법은 진로교육을 정의하면서 진로교육의 대상을 학생으로 명시하였고, Brown(2016)은 학생 및 성인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김봉환, 정철영, 김병석(2006)과 정철영(2017)은 학생과 성인의 구분 없이 개인으로 진로교육의 대상을 범위를 설정하였다. 목표의 경우, 진로교육법은 자기이해, 직업세계 이해, 진로탐색, 진로설계를 진로교육 목표로 설정하였고, 서유정 외(2016)는 진로개발역량 향상, 진로선택 도움으로 진로교육 목표를 명시하였다. 한편, 이들 연구자가 제시한 진로교육의 목표는 개인의 진로선택 시점까지를 목표로 두고 있으나 김봉환, 정철영, 김병석(2006)과 정철영 외(2017)는 진로선택 이후 진로 준비, 적응, 계속 발전까지 전 생애 관점에서 진로교육 목표를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의 진로교육 정의 내 진로교육 제공 주체와 관련하여, Lent & Brown(2013)와 Watts(2009)는 학교만을 진로교육 제공 주체로 명시하였고 진로교육법, 김봉환, 정철영, 김병석(2006), 서유정 외(2016)는 학교뿐만 아니라 국가, 지자체, 지역사회 및 가정을 진로교육 제공 주체로써 포함하였다. 진로교육법에는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의 여섯 가지 진로교육 활동이 명시되어 있다. 서유정 외(2016)는 진로교육 활동으로써 다양한 탐구활동, 다양한 학습을 제안하고 있고, Brown(2016)은 직업정보 제공, 진로관련 개념 지도, 직업 관련 연사 초빙을 제시하였지만, 이러한 활동 모두 진로교육법 내의 6가지 활동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상기 논의한 진로교육의 개념 및 마을교육공동체의 개념을 교육대상, 목표, 제공주체, 활동의 네 가지로 종합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이러한 네 가지 구분을 기반으로 볼 때, 진로교육 마을공동체는 교육대상, 목표에 따라 광의와 협의로 구분될 수 있다. 협의는 학생만을 교육 대상으로 포함하지만 광의는 마을주민까지 포괄하고 있다. 협의의 개념으로 설정된 목표는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함양이지만 광의는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함양 뿐만 아니라 마을주민의 역량 함양, 공동체성 회복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포함한다. 진로교육 마을공동체를 광의로 볼 경우, 진로교육 마을공동체와 학교 교육과정 간 협력, 교육 공간 제공 등 진로교육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포괄할 수 있고, 협의의 관점

에서는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수업, 진로체험, 진로상담 및 심리검사, 진로정보 제공, 취업 지원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표 1> 진로교육 및 마을교육공동체 개념의 관계

진로교육의 개념		↔	마을교육공동체의 개념	
교육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령기 학생 • 성인 	↔	교육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학교 초중고 학생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 함양 	↔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총체적 역량 함양 • 공동체성 회복을 통한 마을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제공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및 지역사회 	↔	구성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을 기반으로 한 학교교원, 학부모, 마을 주민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수업 • 진로체험 • 진로상담 및 심리검사 • 진로정보 제공 • 취업지원 	↔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육과정 참여 (교육기부, 교육협동조합원,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 배움터 제공 (마을의 기관과 장소를 교육공간으로 제공) • 마을의 주인으로 키움 (학생들을 마을의 일원으로 교육)

이 연구는 광의의 진로교육 마을공동체를 ‘학교 및 학부모, 마을 주민(단체/기관)들이 소속감을 기반으로 상호작용 하여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함양과 더불어 마을 주민의 역량 함양, 마을의 공동체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 활동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공동체’로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협의의 진로교육 마을공동체를 ‘학교 및 학부모, 마을 주민(단체/기관)들이 소속감을 기반으로 상호작용하여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함양을 위해 필요한 교육 활동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공동체’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는 협의의 진로교육 마을공동체의 관점을 취하는데 그 이유는 진로교육 마을공동체가 도입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광의의 관점은 다양한 대상과 목표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현재 이러한 다양성을 고려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광의의 관점은 진로교육 마을공동체가 도입되고 정착된 이후에 고려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III. 연구방법

이 연구는 크게 사례분석 및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방법을 통해 수행되었다. 사례분석은 다양한 진로교육 마을공동체의 유형(안)과 추진체계, 주요 특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한 유형(안)에 대해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유형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1. 사례분석

가. 사례분석 대상 선정

이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관련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사례분석 대상을 진로교육 마을공동체를 주도하는 주체를 기준으로 크게 단위학교, 진로체험지원센터, 마을로 구분하여 총 14곳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마을의 공간에서 다양한 체험교육을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단위학교 5개교, 다양한 체험처 발굴, 연계 및 자체 프로그램을 마을 주민과 협업하여 제공하는 중간지원조직(진로체험지원센터) 4곳, 마을에서 형성된 기관/단체로 주민들이 직접 교육 활동을 구성 및 제공하는 기관/단체 5곳을 <표 2>와 같이 선정하였다.

<표 2>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사례 선정 결과

구분	면담 기관	면담 대상자	면담 일자
단위학교	고양 능곡고등학교	최OO 교사	2019. 07. 01.
	인천 서흥초등학교	심OO 교사	2019. 07. 05.
	시흥 장곡중학교	이OO 교사	2019. 07. 08.
	김해 진례중학교	전OO 교사	2019. 07. 09.
	인천 선학중학교	성OO 교사	2019. 07. 11.
진로체험 지원센터	공릉 청소년문화정보센터	이OO 센터장	2019. 06. 07.
	노원 상상이룸센터	최OO 센터장	2019. 06. 17.
	공주 진로직업체험센터	박OO 센터장	2019. 06. 19.
	고양시 청소년진로센터	이OO 센터장	2019. 06. 19.
마을	죽곡마을학교	박OO 관장	2019. 06. 18.
	김포 콩나물 꿈의학교	김OO 마을교사	2019. 06. 27.
	남양주 영화제작 꿈의학교	이OO 교장	2019. 06. 28.
	서곡생태마을(서곡교육네트워크)	문OO 마을교사	2019. 07. 09.
	진안 마을학교	이OO 이사장	2019. 07. 15.

주) 김포 콩나물 꿈의학교는 예산·공간 문제로 2020년도 초 운영이 중단되었으나, 경기도 꿈의학교 우수사례로 다년간 선정된 바 있어 사례분석 대상에 포함하였음.

나. 사례분석 내용 및 절차

이 연구에서는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유형을 도출하기 위해 사례분석법을 활용하였다. 사례분석법은 특정한 한 대상(개인 및 집단 등)에 대해 연구자가 분석하고자 하는 상황과 유사한 사례들을 찾아내어 대상에 대해 심도 있으면서도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방법이다. 사례연구의 목적은 경계가 분명한(Creswell, 2010) 대상을 사례를 통해 학습하고 이를 통해 연구 대상을 깊이 이해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대상인 진로교육 마을공동체가 지닌 다양한 특징을 분석하여 유형을 밝히는데 효과적인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자료 수집은 반구조화된 심층 면담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시·도별 교육(지원)청 및 진로체험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 우수사례 추천을 요청하여 서면 및 유선으로 연구의 취지와 면담 목적을 설명하여 면담이 가능한 기관 및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학교 및 마을 주민(단체/기관)들이 공유된 가치와 소속감을 기반으로 협력하여 마을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구성원을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반구조화 면담내용은 진로교육 마을공동체의 배경 및 운영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① 발전 배경 및 현황, ② 참여 주체 및 추진 체계, ③ 프로그램 및 활동, ④ 성과, ⑤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 다섯 가지로 구성하였다. 면담은 면대면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사전 협조를 얻어 면담내용을 현장에서 녹취하고 사후적으로 면담내용 실사 및 실사 내용에 대해 위의 다섯 가지 분석항목별 내용을 연구진이 상호 교차 분석하여 면담내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2. 전문가 델파이

가. 전문가 패널 선정

델파이(Delphi)는 어떠한 분야의 복잡한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합의를 이루는데 유용한 분석방법이다(한국교육학회교육평가연구회, 1995). 진로교육 마을공동체는 학교, 마을,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구조로 이뤄지므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학교 진로전담교사, 마을교육활동가, 시·도교육청 관계자, 진로체험지원센터 관계자, 진로교육 관련 학계 전문가 각 2인씩 총 10인으로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전문가 패널 인원은 델파이 연구에서 오차를 최소화하고 신뢰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명의 패널이 필요하다(Dalkey, 1972)는 근거 하에 구성하였다. 전문가 패널은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관련 연구 실적, 관련 업무 담당 여부,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우수사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진로교육 마을공동체의 운영 현황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보유한 전문가로 엄선하여 선정하였다(<표 3>).

<표 3> 델파이 전문가 패널 명단

분류	번호	전문가 패널 대상자	선정 기준
학교 진로전담교사	A	초등학교 진로전담교사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우수사례 추천
	B	고등학교 진로전담교사	
마을교육활동가	C	마을교육네트워크 사무국장	
	D	마을학교협동조합 대표	

<표 계속>

<표 3> 델파이 전문가 패널 명단

분류	번호	전문가 패널 대상자	선정 기준
시도교육청 관계자	E	서울지역 교육청 과장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관련 업무 담당
	F	서울 외 지역 교육청 장학사	
진로체험지원센터 관계자	G	서울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 기관장	
	H	서울 외 지역 진로체험지원 센터 기관장	
진로교육 관련 학계 전문가	I	대학교수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관련 연구 실적
	J	연구원	

나. 연구 절차

이 연구는 주도 주체에 따른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유형을 개발하기 위해 약 두 달간(2019. 10. 30.~2019. 12. 31.) 총 2회에 걸쳐 전문가 패널로 선정된 총 10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서면 검토 방식의 델파이를 진행하였다. 세부 단계별 연구 절차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주도 주체별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유형 개발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실시 개요

구분	개요
목적	•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관련 전문가 패널 집단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유형(안)의 타당성 검토 및 최종도출
일시	• 2019년 10월 30일 ~ 2019년 12월 31일
운영방식	•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관련 학교 교사, 마을교육활동가, 교육지원청 관계자, 진로체험지원센터 관계자, 학계 전문가(총 10인) 비대면 서면 검토 방식 • 총 2회 전문가 델파이 실시
1차 전문가 델파이	• 주도 주체별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유형(안) 타당성 검토 1) 유형별 운영 및 지원체계의 타당성 2) 유형별 운영 및 지원 주체별 역할에 대한 타당성 3) 유형별 주요 특징의 타당성
2차 전문가 델파이	• 1차 주도 주체별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유형(안) 타당성 검토 결과 • 주도 주체별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유형 수정(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다. 자료분석 및 타당성 확보

이 연구의 자료 수집은 전문가 집단으로 선정된 패널에게 전화로 협조를 구한 후, 이메일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델파이의 경우 설문지가 지나치게 구조화되거나 세분화되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제한될 수 있어, 자유로운 의견 도출을 위해 연구진이 도출한 추진 방향 자료를 제공하고 개방형 검토의견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하는 비구조화된 방식의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2차 델파이에는 1차에서 도출된 내용을 기반으로 내용을 수정, 삭제 또는 추가하였으며, 유형에 대한 타당성은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이때 응답자들이 선택한 점수가 5점에 가까울수록 타당성을 높게 설계하였다.

IV. 연구결과

1.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사례 분석 결과

가. 단위학교

단위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진로교육 마을공동체는 주로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달하였다. 고양시 능곡고등학교의 특징은 ‘센터-학교-교육(지원)청의 3자 구조’ 라는 점이다.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지원)청에 진로교육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교육(지원)청은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의 역할, 그리고 고양청소년진로센터와 능곡고등학교는 학교 진로교육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공동 프로그램 개발 등 유기적인 협력을 주고받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천시 서흥초등학교는 내부 교사 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학교 교과과정의 마을 연계 필요성에 대한 논의과정을 거쳐 25개의 마을 내 다양한 민간단체, 기관, 기업, 소점포 등으로 구성된 마을교육협의체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다.

“고양시는 고양 혁신 지구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혁신지구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의 규모가 굉장히 커요. 교내 부서에 담당하는 부장님과 선생님이 계시고 총예산은 200억이 넘게 들어가요.”(능곡고등학교)

“저희는 아예 학교 교육과정을 추진을 구성하면서 마을과 함께 하는 교육과정을 마을과 함께 진행하는 걸로 아예 계획을 했어요.”(서흥초등학교)

프로그램 및 활동 측면에서 살펴보면, 단위학교 주도형 진로교육 마을공동체는 주로 학생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여 운영’ 하고, 진로교육 콘텐츠 및 운영방안을 마련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인천시 선학중학교의 경우, 마을교사 및 마을 내 사회적기업과 학교 수업을 연계한다. 마을교사로 조직된 마을학교의 수업 중 학생들의 호응이 높은 경우 자유학기수업과 방과 후 수업으로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딱딱이 공방이라는 사회적기업과 목공 관련 체험을 연계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 학교 낙후시설 재건을 위한 공간혁신프로젝트 등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마을의 환경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해 진례중학교에서는 도예협회와 김해진로교육센터 등 마을 내 인적, 물적 자원들을 학교교육과 연계하고 운영하고 있었다.

“방과후 수업하시는 마을 선생님들 중에 수업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정규 자유학기 수업을 실제로 맡아 하시죠.”(선학중학교)

“가야의 역사 더 나아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는 교육을 좀 하면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좀 바로 알고 있는, 뿌리가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진례중학교)

프로그램 및 활동의 가장 큰 성과는 협력체계 구축과 마을에 자부심 향상으로 나타났다. 능

곡고등학교의 경우 3자 구조의 추진체계를 통해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추진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지게 되었다. 김해 진례중학교의 경우에는 마을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활동을 통해 마을 아이들이 갖게 되는 마을에 대한 자부심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및 활동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교와 마을을 연계하여 프로그램 및 활동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학교와 마을 간 이해관계 상충의 문제와 교사 지역 만기 제도도 인해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활동의 지속이 어렵다는 제한점이 존재했다.

“3자 구조가 제일 괜찮다고 봐요. 시에서 참여하는 주축기관으로 진로센터가 있고, 거기에 교사진이 연구진으로 들어가서 같이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해 나가는 거니까.”(능곡고등학교)

“진로교육의 성과를 함께 나누면서 학생들 스스로 자기의 존재나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기여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진례중학교)

그러나 단위학교 주도형의 사례는 행정적 지원 부족, 마을교육 담당교사 순환 근무라는 제한점이 있었다. 인천시 서흥초등학교의 경우, 분과별 마을교육과정협의회 운영과 학교 중심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 거점 공간 마련 및 마을교육활동가 양성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진례중학교는 교사 업무 부담, 마을공동체 체험활동 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운영 지원과 관련한 부분이 운영 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았다.

“활동가들이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마을교육 리더 연수, 리더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서흥초등학교)

“안전점검 같은 부분이 진로교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운영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진례중학교)

나. 진로체험지원센터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형성된 진로교육 마을공동체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내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마을 주민들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공릉 청소년문화정보센터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역 내 도서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을 공간적으로 융합하고, 지역사회가 질적으로 변화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진로교육 마을공동체로 발전하였다. 노원구 상상이룸센터는 처음 시작은 저소득층의 자녀 돌봄 사업이었지만 이후 진로교육을 제공하며 센터의 역할이 확장되며 구청과 교육청 간 MOU를 맺음으로써 진로교육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희는 청소년들이 모이고 둘러앉아서 자신들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같이 설계되어 있는 도서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이 융합된 미래형 공공시설입니다.”(공릉 청소년 문화정보센터)

“2개의 자치 교육청과 교육지자체의 정책 사업들이 맞아서 MOU를 맺었어요. 저희는 지역에서 위탁을 주신 거죠.”(노원 상상이룸센터)

프로그램 및 활동 측면에서 살펴보면, 진로체험지원센터 주도 진로교육 마을공동체는 주로 학생 및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활동을 운영하거나 마을 내 인적 자원 양성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공릉 청소년문화정보센터의 경우 대부분 프로그램 및 활동이 마을 내 주민과 센터가 협력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개별 학교의 신청을 통해 제공된다. 대표적으로 ‘마을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은 마을 주민이 마을 여행 해설사가 되어 마을의 아이들을 교육하고 마을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켜준다. 이때 센터는 학교의 입장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하기도 하고 학교가 준비할 수 없는 물적 인프라를 제공하는 일종의 외부펀딩 방식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는 매개자의 역할을 한다. 또 다른 사례는 고양시 청소년진로센터의 대표적인 활동으로 ‘학부모 지원단’과 ‘현장직업패키지’가 있다. 학부모 지원단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학생들의 체험처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현장직업패키지는 교사가 진로체험활동을 보다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체험처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이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센터에 일하는 청년 선생님들이 가서 청소년들과 마음 열거나 자기가 본 지역의 마을에 대한 이해를 확장을 해 주고 보고 배우게 하게끔 하는 일들을 센터에서 합니다.”(공릉 청소년 문화정보센터)

“학부모 지원단을 마을교육공동체의 결정체라고 봐요. 마을과 학교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사회를 학교로 만드는, 특히 진로라는 콘텐츠가 있어서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고양 청소년진로센터)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주도하는 프로그램 및 활동의 가장 큰 성과는 ‘다양한 기관 간 협력 구축’과 대학교 인적 자원 활용이라고 볼 수 있다. 노원 상상이룸센터의 최OO 센터장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내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실현해 나간다는 점과 기관 간의 높은 수준의 협력이 진로교육 마을공동체의 가장 큰 성과라고 언급했다. 또한, 자체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는 공주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인적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프로그램 운영과 기획에 큰 성과를 창출해내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및 활동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노원 상상이룸센터는 대규모 진로체험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협력에 대한 학교의 인식 부족 및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의 역할 및 인식 부재를 가장 큰 제한점으로 꼽았으며, 공주 진로직업체험센터의 박OO 센터장은 전문직업인으로서 갖춰야 할 졸업생을 인정하지 않는 편견과 마을교육활동가와 지원센터와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행사를 기획하는데 학생을 단순히 참여시키는 낮은 수준부터 타 기관과 협력하여 프로그램들을 같이 공동으로 기획해보는 것까지 발전했죠.”(노원 상상이룸센터)

“‘공주대 교육나눔’ 법인이 공주대와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이고, 공주대학교에서 졸업한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과 함께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공주 진로직업체험센터)

그러나 진로체험지원센터 주도 진로교육 마을공동체는 마을활동 행·재정적 지원 확대와 마

을 주민의 인식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노원 상상이룸센터의 최OO 센터장은 마을교육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명확한 역할 인식과 모든 구성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고양시 청소년진로센터의 이OO 센터장은 센터 차원에서 양적인 성과 창출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진로센터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및 예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을 위해서) 지역교육청(및 지자체)의 역할이 분명 있거든요. 협의를 같이해줄 수 있는 중앙 역할을 해야 이게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게 원활할 거예요.”(노원 상상이룸센터)

“진로센터가 활성화 되고 진로교육이 활성화 되는 곳은 지자체가 관심을 갖는 곳이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결국은 예산인 거죠.”(고양시 청소년진로센터)

다. 마을

마을 주도 진로교육 마을공동체는 대체로 도심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교육 및 복지 수혜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서 자녀와 마을 아이들을 위해 마을주민의 자생적인 노력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죽곡마을학교는 마을주민들이 함께 모여 소통할 수 있는 마을 도서관 설립으로 시작하였으나,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통해 죽곡농민열린도서관 건물이 마련되면서 진로교육 마을공동체로 발전한 사례이다. 서곡교육네트워크는 농촌마을에 위치한 마을교육협의체이자 협동조합으로, 1999년부터 원주시 내에서 공동육아를 운영해오다가 몇몇 부모들이 함께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시작하며 마을교육공동체로 확장되었다. 김포 콩나물 꿈의학교도 자녀의 마을 적응을 돕기 위해 집에서 마을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하던 것이 점차 커져서 마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뮤지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을공동체가 되었다.

“마을 주민들과 아이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마을 공간을 마련하자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어요.”(죽곡마을학교)

“아이들을 자연에서 키우고 싶었어요. 저희 아이가 마을 아이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놀이를 한 데에서 시작되었어요.”(서곡교육네트워크, 김포 콩나물 꿈의학교)

마을 주도 진로교육 마을공동체는 마을 아이들과 주민들이 힘을 합쳐 마을이 가진 고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 맞춤 프로그램과 활동’을 만들어나가고 있었다. 죽곡마을학교는 농촌 마을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생태자원을 활용한 농사짓기 프로그램과 아이들이 직접 마을학교에서 쓴 글들을 엮어 마을 도서를 출간했다. 김포 콩나물 꿈의학교와 남양주 영화제작 꿈의학교는 마을 아이들이 직접 뮤지컬, 영화 제작과정에 참여하여 스스로 기획부터 공연까지 수행하는 경험을 하고 있다.

“죽곡초 농사짓기 프로그램이나 한울고 마을농활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적이 드문 마을 내 공간에서 학생들이 활동하니 마을주민들이 마을의 활기를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죽곡마을학교)

“뮤지컬을 사용해서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가르치는 학교라고 소개를 해요. 아이들이 뮤지컬을 함께 만드는 과정에서 갈등을 스스로 조율해 나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김포 콩나물 꿈의학교)

프로그램 및 활동의 가장 큰 성과는 마을 아이들의 자립심 형성과 마을이 ‘삶과 배움의 공간’으로 선순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마을 아이들은 마을 오빠, 누나 멘토들과 함께 뮤지컬, 영화제작 등의 활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갈등을 해소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삶의 방식’을 배우고 있었다. 서곡생태마을의 문OO 사무국장은 마을 아이들이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잘 찾아가는 힘’을 기르게 되었다며, 지난 15년간 마을 내 학생 수가 세 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결국,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활동은 마을 아이들의 진로역량 함양뿐 아니라 마을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으로 이어져 마을이라는 공간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있었다.

“마을 안에서의 선순환이 시작이 되었다는 건데요, 마을로 돌아와서 마을에서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많이 생겼어요.”(김포 콩나물 꿈의학교)

“본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1년 딱 끝나면 애들 어깨가 달라져요..”(남양주 영화제작 꿈의학교)

“자기 인생 자기가 잘 찾아가기만 해도 성공인거죠.. 우리 마을 아이들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서곡교육네트워크)

그러나 마을 주도 진로교육 마을공동체는 마을학교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인식 차이와 경계심, 마을활동에 대한 지원 부족이라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진안 마을학교는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조합원들로 하여금 마을학교 운영 취지에 대한 깊은 공감과 능동적인 활동 참여를 이끌어내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 간 활발한 의사소통과 법과 제도적 지원을 위한 교육청 및 지자체의 협력, 진로교육 마을공동체의 의미에 대한 고민과 교육청과 지자체의 합리적인 예산 분배 및 꿈의학교 활동가들 간의 실패 경험 공유 기회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주민들이 마을학교가 왜 필요한지, 마을교육활동가들은 교사로서 검증된 사람인지 등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죽곡마을학교, 김포 콩나물 꿈의학교, 진안 마을학교)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고민을 따로 하지 말고 지역사회가 필요한 것을 함께 좀 고민하는 게 필요해요. 교육청과 지자체가 마을학교 프로그램 특성에 맞게 예산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지원해야 하죠”(진안마을학교, 죽곡마을학교, 서곡교육네트워크)

이상의 학교, 진로체험지원센터, 마을 주도의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사례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주제별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사례분석 종합

주도	사례 대상	교육 대상	관련 주제								주요 성과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단위 학교	고양 능곡고	학교 학생	●	●	●				●	●	3자 협력 체계 구축	마을교육 담당교사 순환근무 문제
	인천 서흥초	학교 학생				●	●	●	●		교사주도 노력	학교와 마을 연계 행재정 지원 확대 필요
	시흥 장곡중	학교 학생	●	●	●				●	●	마을과 신뢰구축	인식개선 및 마을교육 담당교사 순환근무 문제
	김해 진례중	학교 학생	●	●	●	●			●	●	마을에 대한 자부심	마을교육활동 행재정 지원 확대 필요
	인천 선학중	학교 학생				●	●	●	●		마을교사의 성장	인식개선 및 마을교육활동 행·재정 지원 확대 필요
지원 센터	공릉청소년 문화정보센터	마을 주민				●			●	●	마을주민의 성장	마을활동 행·재정 지원 확대 및 운영의 질적 강화 필요
	노원상상 이룸센터	마을 학생	●	●				●	●	●	다양한 기관 간 협력	
	공주진로체험 지원센터	학교 학생	●	●		●			●	●	대학교 인적 자원 활용	인식 확대 및 학교-마을간 연계 확대 필요
	고양청소년 진로센터	마을 학생	●	●	●	●	●	●	●	●	3자 협력체계 구축	인식 확대 및 마을활동 행·재정 지원 확대 필요
마을	죽곡마을학교	마을 주민	●	●	●	●	●	●	●	●	마을 아이들의 주체성 함양	마을주민들의 인식개선 및 마을교육활동 행·재정 지원 확대
	김포 콩나물 꿈의학교	마을 학생	●	●	●	●	●	●		●	마을 아이들이 삶의 방식 터득	마을교육활동 행·재정 지원 확대
	남양주 영화 제작 꿈의학교	마을 학생	●	●			●	●	●	●	학생과 마을 성장	마을교육활동가 양성 및 지원, 운영의 질적 강화 필요
	서곡교육 네트워크	마을 학생	●	●		●	●	●	●	●	마을 아이들의 바른 성장	정부 및 지자체의 인식개선 및 학교-마을 연계 지원 확대
	진안 마을학교	마을 학생	●			●	●	●	●		민간주도, 조례제정	중간지원조직 역할 강화, 마을교육활동 행·재정 지원 확대

주) 관련주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② 교육(지원)청, ③ 중간지원조직, ④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⑤ 협의회, ⑥ 단위 학교, ⑦ 학부모, ⑧ 마을교육활동가

2. 전문가 델파이 결과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단위학교, 진로체험지원센터, 마을 주도의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사례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의 같다. 첫째, 단위학교 주도의 경우 교사들의 자생적인 노력으로 해당 학교 학생들에 특화된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는 ‘단위학교 중심형’이 가장 많았다. 둘째, 진로체험지원센터 주도의 경우 단위학교 중심 진로교육 마을공동체가 학교 학생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마을 학생 및 주민의 성장과 마을 내 다양한 기관 간 협력을 이루고 형태로 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마을 주도의 경우 죽곡마을학교, 남양주 영화제작 꿈의학교와 같이 마을활동가 개인 차원의 자발적인 노력

을 기반으로 마을교육활동이 이뤄지는 ‘마을활동가 주도형’ 과 서곡교육네트워크와 같이 다양한 마을 내 주체들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마을교육협의체 주도형’, 진안 마을학교와 같이 학부모 모임에서 시작하여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로 확장된 ‘교육협동조합 주도형’의 형태가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 1차 델파이 결과: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관련 용어 및 유형

연구진은 주도 주체에 따른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유형(안)을 ① 교육(지원)청-중간지원조직(센터)-단위학교 협력형, ② 학교-중간지원조직(센터)연계형, ③ 중간지원조직(센터)주도형, ④ 마을교육활동가 주도형, ⑤ 마을교육협의체 주도형, ⑥ 교육협동조합 주도형 6가지로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유형(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진이 제시한 6가지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유형(안)에 대해 Likert식 5점 척도를 기준으로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운영 및 지원체계, 주요 특징, 운영 및 지원 주체별 역할에 대한 타당도 설문을 실시한 결과 6가지 유형 중 유형 4. 마을활동가 주도형(3.58)과 유형 6. 교육협동조합 주도형(3.87)이 ‘타당하다(4점)’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각 검토항목의 내용타당도를 Lawshe(1975)가 제시한 기준에 근거하여 전문가 패널 수에 따른 최소값을 기준으로 내용타당도 비율(CVR)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표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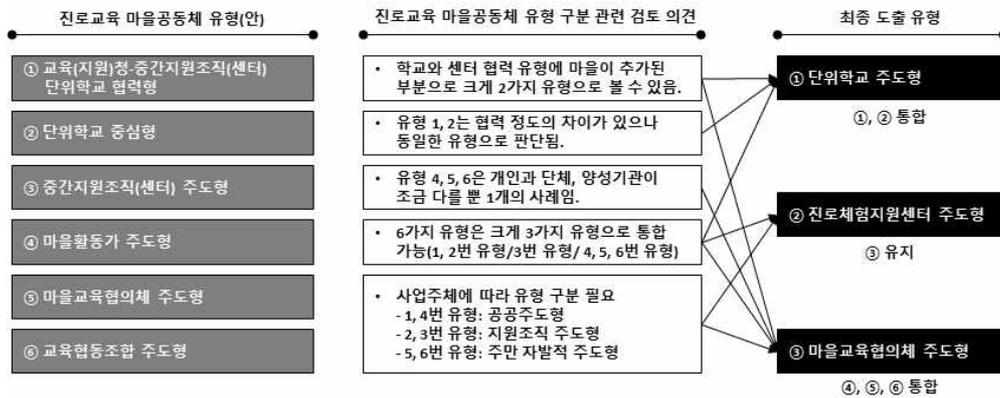
<표 6>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유형별 타당도 검토 결과(Likert식 5점 척도)

(단위: 점)

검토 항목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운영 및 지원체계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주요 특징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운영 및 지원 주체별 역할	평균	CVR
유형1. 교육(지원)청-진로체험지원센터-단위 학교 협력형	4.20	4.2	3.80	4.07	0.86
유형2. 학교-진로체험지원센터 연계형	4.00	4.25	4.00	4.08	0.86
유형3. 중간지원조직(센터) 주도형	4.00	4.25	4.00	4.08	0.73
유형4. 마을활동가 주도형	3.75	3.50	3.50	3.58	0.60
유형5. 마을교육협의체 주도형	4.25	4.00	3.75	4.00	0.86
유형6. 교육협동조합 주도형	4.00	4.00	3.60	3.87	0.60

1차 델파이 결과,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유형(안)에 대해 유형 구분이 다소 복잡하고 내용이 유사하여, 유형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교와 센터 협력 유형에 마을이 추가된 부분으로 6가지 유형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 유형 1, 2는 협력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동일한 유형으로 판단된다는 의견, 유형 4, 5, 6은 개인과 단체, 양성기관이 조금 다를 뿐 동일한 유형으로 판단된다는 등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유형(안)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유형을 ① 단위학교 주도형, ② 진로체험지원센터 주도형, ③ 마을교육협의체 주도형으로 통합하여 제시하였다([그림 1] 참조). 또한, 용어 사용에 있어, ‘마을활동가’, ‘마을교육협의체’, ‘교육협동조합’ 이 개인 혹은 단체라는 측면에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마을교육협의체를 구성하는 주체들로 볼 수 있어 마을교육협의체로 용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그림 1]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유형 도출 과정

나. 2차 델파이 결과: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유형별 추진체계, 역할, 특징

2차 델파이는 1차 델파이에서 나온 의견을 기반으로 수정한 세 가지 유형에 대한 타당성과 세 가지 유형에 대한 ① 운영 및 지원체계, ② 운영 주체 및 지원 주체 역할, ③ 유형의 주요 특징(배경, 프로그램 및 활동, 주요 성과, 제한점, 운영 시 필요사항)의 내용이 타당한지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2차 델파이에 대한 검토의견 및 기존 유지, 추가, 수정, 삭제 여부 내용은 <표 7>과 같다.

<표 7> 2차 델파이 주요 검토의견 종합

검토 항목	2차 델파이 검토의견	유지	추가	수정	삭제
① 운영 및 지원체계의 타당성	• 유형 1, 2가 유사함. 두 유형에서 교육지원청과 단위학교 역할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구별이 필요함.			●	
	• 유형 2는 유형 1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 우선적 대안으로서의 모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지속적으로 마을협의체와 학생 간 안정적인 연계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 육성이 중요함.		●		
	• 유형2에서 진로체험지원센터는 마을 내 진로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인적·물적 자원 발굴, 마을 내 단위학교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역할 수행이 필요함.			●	
	• 유형2의 경우 마을활동가의 위치가 진로체험지원센터 위쪽에 위치해야 센터주도형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됨.	●			
	• 유형2의 경우 진로체험지원센터가 학교와 지원센터, 센터와 교육지원청, 시청의 관계에서 중심에 있어야 함.	●			
	• 유형3은 주민자치회와의 관계 설정이 중요함(자치회 내 교육분과 설치로 읍·면·동 차원의 교육협력구조 구축).		●		
	• 유형3이 마을활동가 개인 주도와 교육협동조합, 협의체 등 단체 주도를 모두 포함한다는 점에 대한 언급이 필요함.		●		
② 운영 주체 및 지원주체 역할의 타당성	• 유형1에서 진로교사협의회의 위상은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 단위학교는 어느 유형에서나 주체가 되어야 함.			●	
	• 지원주체로서의 단위학교와 운영주체로서의 단위학교로 역할을 구분하여 적으니 보다 명확하게 다가옴.	●			
	• 협력의 과정에서 지원주체로서의 단위학교의 역할이 세분화되어 기록될 필요가 있어 보임.		●		
	• 지자체는 마을 교육 강사에 대한 역할에 합당한 수당 제공 역할 수행이 필요함.	●			
	• 진로체험지원센터는 현실적으로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예산 지원 및 운영 지도·감독을 받고 있어, 적절한 거버넌스 구축과 지원 주체의 협조가 필요함.		●		
	• 마을단위 학교교사 협의체와 유관기관협의회 간 통합적 연계가 필요함(조직 통합 및 분과 구분, 교사협대표 참여 등)	●			
• 마을활동가 발굴 및 양성 역할은 공공 및 민간기관보다는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담당할 필요가 있음.	●				
③ 유형의 주요 특징	• 유형1에서는 진로전담교사 협의체의 지원이 매우 큰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 유형1에서는 초등학교에 진로교육 전담교사의 배치를 통한 전문성 확보와 지역 내 초, 중, 고교를 아우를 수 있는 협의체 구축이 필요함.		●		

<표 계속>

<표 7> 계속

검토 항목	2차 델파이 검토의견	유지	추가	수정	삭제
③ 유형의 주요 특징	• 유형2에서 진로체험지원센터는 단순 진로상담을 지양하고,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 개발 노력이 필요함.		●		
	• 유형2 운영상의 제한점은 자체 예산 확보가 어렵고, 지원기관의 재배정 지원에 의존한다는 데에 있음.		●		
	• 유형2 운영 시 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안정적인 예산 확보, 직원의 고용 안정성 제고, 조례 등 법령에 의거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 유형2에서는 인적/ 사업/ 정보/ 공간 네트워크 등 다양한 유형의 협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 유형2에서 진로체험지원센터 인력들의 고용안정성이 낮다는 제한점은 재고가 필요함. 실제로는 전문인력 채용으로 인해 고용지속성이 생각보다 더 높을 수 있음.				●
	• 유형3의 제한점은 참여 주체들이 상시적, 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점임. 지방자치단체의 공간 지원과 폐교 활용방안 등 검토 필요함.		●		
	• 유형3에서는 운영 시,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활동 모델(예. 진학지도 협력모델 등) 구축이 필요함. 우수 활동가 대상 표창 및 재정적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사기 진작 방안 마련도 필요함.		●		

3.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유형

사례분석과 두 차례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통해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세 가지 유형 1) 단위 학교 주도형, 2) 진로체험지원센터 주도형, 3) 마을교육협의체 주도형으로 최종적으로 도출되었다. 유형별로 운영 및 지원체계와 주체별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단위학교 주도형

단위학교 주도형은 교육(지원)청과 진로체험지원센터의 기반으로 한 단위학교 중심의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실현 가능성이 가장 큰 유형이다. 그렇기에 단위학교 내 진로전담교사, 진로체험지원센터, 교육(지원)청 3자 간 수평적 구조의 정기적 협의를 통한 프로그램 발굴 및 인적·물적 자원 교류와 지원주체 중 ‘진로전담교사협의회’의 프로그램 발굴 및 개발 지원 역할 매우 중요하다.

단위학교 주도형의 주요 특징을 배경, 프로그램 및 활동, 주요 성과, 제한점, 운영 시 필요사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학교 주도형의 배경은 혁신학교 및 자유학기·학년제 사업을 통해 진로교육 및 학교-마을 간 협력에 대한 관심 증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은 학교 안에서의 진로교육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의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해 지역 내 다양한 기관이 학교와 협력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협력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지역 내 진로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정철영 외, 2016). 단위학교 주도형은 혁신학교 및 자유학기·학년제 사업에 배경을 두고 있고 특히, 지역 내 진로교육 담당 기관인 교육(지원)청, 진로체험지원센터, 단위학교 간 협력이 기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단위학교 주도형의 프로그램 및 활동은 교육청-진로체험지원센터-단위학교의 삼자 연계·협력, 진로교육 콘텐츠 및 운영 방안 마련, 지역 내 단위학교의 진로교육 사업 마련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유형은 지역 내 진로교육 담당 기관인 교육(지원)청-진로체험지원센터-단위학교 간 협력이 기반되어야 함을 강조하기에, 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단위학교 주도형의 주요 성과는 마을 내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담당 인력의 정기적 회의를 통한 협력 활성화, 마을 진로교육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이다. 이 유형은 학생들에게 직접 진로교육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이 있지만, 운영주체 간 협력을 활성화가 기반이 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유형의 성과는 교육(지원)청-진로체험지원센터-단위학교 간 협력 활성화에 대한 성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단위학교 주도형의 제한점으로 교육(지원)청-진로체험지원센터-단위학교 협력을 위한 협력 주체들의 역할 확립 부재, 교육(지원)청-진로체험지원센터-단위학교 협력형의 성과관리 체계 부재를 제시하였다. 현재, 진로교육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진로교육 마을공동체를 위한 각 주체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명시되지 않았거나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성과관리 체계가 부재하여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력, 특히 단위학교 주도형의 운영 노력에 대한 성과를 판단하는 것이 제한된다. 따라서 향후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단위학교 주도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진로체험지원센터-단위학교 협력을 위한 협력 주체들의 역할 확립, 단위학교 주도형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마련, 진로교육에 대한 마을의 인식 변화, 교육(지원)청-진로체험지원센터-단위학교 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 확대, 단위학교 주도형 운영 매뉴얼 제작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나. 진로체험지원센터 주도형

진로체험지원센터 주도형은 교육(지원)청-진로체험지원센터-단위학교 협력형의 안정화 단계에 해당하며,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운영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보다 발전적인 유형이다. 그렇기에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운영에 대한 마을 내 단위학교 교사협의체와 마을교육협의체와의 유기적 연계 구조 마련 및 안정화가 중요하며 특히 지원주체 중 ‘마을교육활동가’의 발굴 및 역량 개발, 네트워크 활성화가 중요하다.

진로체험지원센터 주도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전 배경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공릉 청소년문화정보센터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내 복지시설이 마을주민의 성장을 위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센터로써 조직을 확대하였고 노원 상상이룸센터의 경우에는 센터 내의 조직구성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성에 영향을 주며 규모화되었다. 둘째, 진로체험지원센터 주도형에서는 다양한 방과 후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진로교육 마을학교 발굴 및 관리, 진로교육 마을교육활동가 발굴 및 양성, 학교연계 활동, 진로상담 및 체험 기관 연계, 교육 및 연수 등 마을 내 단위학교의 진로체험을 지원하는 허브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주요 성과로는 센터의 물적·인적 인프라 지원을 통해 진로교육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마을 내 인근 단위학교와 연계를 통해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역 내 다양한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의 목표형성을 가능케 하고 정규교육과정이나 다양한 진로교육 마을교육활동가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수업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였다는 점에서 센터를 통해 마을의 진로교육이 활성화되어 센터와 마을 주민 간의 소통과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와 마을의 연계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하며 고용의 안정성 문제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운영을 위한 몇 가지 필요사항이 있다. 먼저, 진로교육 마을학교 운영 시 진로체험처 안전 질 관리 지원이 필요하며, 진로체험 운영기관의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센터와 교내·외 교사협의회 간의 전문적인 학습공동체와 같은 상호교류를 촉진해야 한다.

다. 마을교육협의체 주도형

마을교육협의체 주도형은 마을교육활동가, 마을 내 다양한 기관 및 협의체 등 마을 주민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진로교육 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의 교육 활성화를 위한 유형이다. 그렇기에 지방자치단체별 여건 및 특성을 반영한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특화 사업을 추진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원주체 중 ‘주민자치회’와의 유기적 협력 관계 구축이 중요하다.

마을교육협의체 주도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교육협의체 주도형의 발생은 교육 및 복지, 생활수준이 열악한 지리적 환경을 가진 지역이거나 마을주민들의 고민에서 자생적으로 조성된 경우가 많고 다양한 단체 및 기관들이 마을교육을 위해 자발적이고 상호 협력적으로 협의체를 구축하여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조성한다는 특징이 있다. 둘째, 주요 프로그램 및 활동으로는 ‘특성화된 학교 밖 방과 후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김포 콩나물 꿈의학교는 마을 아이들이 스스로 소규모로 뮤지컬을 제작하고 각본, 촬영 등을 통해 실제 마을 공연까지 개최하는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남양주 영화제작 꿈의학교는 영화제작 강의, 캠프, 워크숍, 청소년 영화제 개최 등 영화 제작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 마을교육

협의체를 통해 강사 및 활동 장소 대관 지원 등을 받고 있다.

셋째, 주요 성과는 마을 내 다양한 단체 및 기관들과의 공식적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진로교육 마을공동체의 풍부한 자원 확보 및 활용이 용이해졌으며, 마을 주도의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주체성을 함양하는 힘을 길렀다는 것이다. 또한, 주민자치역량 강화와 마을교사 발굴 및 육성을 통해 학교 정규교육과정 내에 마을교육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참여시키고 있다. 넷째, 제한점으로는 ‘마을학교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낮은 인식 및 경계심’ 과 ‘학교 내 마을교육 담당자 부재로 인한 정규교육과정 연계 추진의 어려움’, ‘마을활동 운영 예산 지원 부족으로 인한 마을교육활동가 체계적 양성 한계’ 를 들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마을교육협의체 주도형 운영 시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인 예산 분배’, ‘행정절차 간소화 및 마을학교 교사의 부족한 행정력 지원’, ‘교육공모사업 연계’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상의 세 가지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유형을 배경, 프로그램 및 활동, 주요 성과, 제한점 및 운영 시 필요사항으로 종합하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주도 주체에 따른 세 가지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유형 개요

구분	① 단위학교 주도형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② 진로체험지원센터 주도형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③ 마을교육협의체 주도형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학교 및 자유학기제 사업을 통해 진로교육 및 학교-마을 간 협력에 대한 관심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내 복지시설(도서관, 청소년 시설 등)이 마을주민(청소년 포함)성장을 위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센터로써 조직 확대, 지자체의 유휴공간을 진로교육공간으로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및 복지, 생활수준이 열악한 외진 지리적 환경 • 폐교의 위기, 자녀들의 돌봄 등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고민에서 자생적으로 협력적 네트워크 조성
프로그램 및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지원)청-진로체험지원센터-단위학교의 삼자 연계·협력 • 진로교육 콘텐츠 및 운영 방안 마련 • 지역 내 단위학교의 진로교육 사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 후 진로체험 프로그램 및 자유학기제 연계 지원을 통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학교-마을 연계 및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지원 허브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화된 마을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학교에서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자유학기제 수업과 연계
주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내 진로교육 관련 교육(지원)청, 진로체험지원센터, 단위학교 인력의 정기적 회의를 통한 협력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를 통해 마을에서의 진로교육 활성화(센터와 마을 주민 간 소통과 협력체제 구축, 마을 내 유관기관과 진로교육 정보 공유 및 공동의 목표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내 다양한 단체 및 기관들과의 공식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진로교육 마을공동체의 풍부한 자원 확보 및 활용 용이 • 마을 아이들의 주체성 함양 주민자치역량 강화

<표 계속>

<표 8> 계속

구분	① 단위학교 주도형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② 진로체험지원센터 주도형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③ 마을교육협의체 주도형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제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지원)청-진로체험지원센터-단위학교 협력을 위한 협력 주체들의 역할 확립 부재 교육(지원)청-진로체험지원센터-단위학교 협력형의 성과관리 체계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센터 내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질 관리 및 인적·물적 자원 DB 구축의 제한 진로체험지원센터 구성원의 고용안정성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학교에 대한 주민들의 낮은 인식 및 경계심 학교 내 마을교육 담당자 부재 및 정규교육과정의 연계 어려움 지자체 여건에 따라 마을활동 운영 예산 지원 부족으로 마을교육활동가 체계적 양성 한계
운영 시 필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지원)청-진로체험지원센터-단위학교 협력을 위한 협력 주체들의 역할 확립 및 성과관리 체계 마련 필요 교육(지원)청-진로체험지원센터-단위학교 협력형 운영 매뉴얼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체험지원센터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제정 교육지원청과의 연계(예: 센터와 교내·외 교사협의회 간의 전문적인 학습공동체 및 협의회 등)를 통한 진로교육 활성화 종합 지원 진로체험지원센터 구성원의 고용안정과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인 예산 분배 및 마을학교 교사의 부족한 행정력 지원 필요 마을학교 공간 지원 필요 지자체의 주민제안형 공모사업 검토 필요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 연구는 진로교육 마을공동체의 개념을 정립하고 주도 주체에 따른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유형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교육 마을공동체의 개념을 교육대상, 목표, 제공 주체, 활동을 축으로 협의 및 광의적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협의적 관점에서 진로교육 마을공동체가 학생 진로 개발역량 함양에 목적을 두고 있으나, 광의적 관점에서 볼 때 마을 주민의 역량 함양, 마을의 공동체성 회복을 지원하는 공동체로 확장 및 발전될 수 있는 개념임을 함께 제시하였다. 이는 김용련(2015), 서용선 외(2015)와 같이 마을교육공동체를 마을 관점에서 공동체성 회복을 통한 마을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개념화한 내용이 본 연구의 진로교육 마을공동체의 광의적 개념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진로교육 마을공동체의 개념이 마을 및 지역 현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유연한 적용을 위한 개념적 토대를 정립하였

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교육대상, 목표, 제공주체, 활동을 기반으로 한 개념 정립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진로교육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의 개정, 활동의 범위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정책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진로교육 마을공동체는 주도 주체 즉 단위학교, 진로체험지원센터, 마을교육협의체에 따라 유형화될 수 있으며, 세 가지 유형에 따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학교 주도형은 단위학교 요구에 부합하는 유형으로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운영 초기 단계에 적합한 유형으로 주로 교내에서 운영되는 진로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어 교육부 또는 교육청이 마을 내 단위학교를 지정하여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작하기에 적합하다. 진로체험지원센터 주도형은 일정 규모 이상 지역사회의 공통된 요구에 부합하는 유형으로 이들은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의 예산을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진로교육과 관련한 지역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할 수 있다. 이 유형에서 강조되는 점은 센터 내 인력의 전문성인데, 진로체험지원센터는 마을 내 진로교육 인적 및 물적 인프라 발굴과 연계의 역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마을 내 진로교육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진로체험지원센터 주도형은 마을공동체,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선행연구에서 볼 때,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의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제언과 맥을 같이 하는 유형으로서 그 중요성이 크다(서용선 외, 2015; 양준호 외, 2016). 마을교육협의체 주도형은 학교와 마을의 공동 발전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마을 활동가 협의체의 역할이 강조된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이기 때문에 마을교육협의체 주도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진로교육 마을공동체는 학교, 마을을 넘어 다양한 지역 주체들과의 협력적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희수 외(2016), 박병춘(2012), 전대옥, 박승규, 최인수(2012) 등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선행연구들은 공동체의 공간적 규모 측면에서 마을공동체의 공간적 규모를 마을과 지역의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지역보다는 마을에 초점을 두어 마을공동체의 공간적 규모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연구결과 진로교육 마을공동체는 마을 내 다양한 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의 여러 기관과도 함께 협력하기 때문에 지역 단위의 관련 주체들의 역할을 고려하여 개념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주도 주체에 따른 세 가지 유형별로 운영 및 지원주체의 역할에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학교 주도형은 학교, 교육(지원)청과 진로체험지원센터 삼자가 주된 공동 운영주체로서 상호 간에 진로교육 프로그램 성과 공유 및 행·재정적 운영지원 협력이 이뤄진다. 반면, 진로체험지원센터 주도형은 센터가 중심이 되어 학교, 마을과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마을교육활동가를 육성하는 등 학교와 마을을 연계하는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이다. 마을교육협의체 주도형은 두 유형에 비해 보다 더 마을주민의 자생적, 주

도적 역할을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차이가 있다.

이는 송두범, 양병찬, 강수현(2016)이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은 학교와 마을, 아이들과 마을주민, 다양한 단체 간에 자율적이며 느슨한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또한, 송두범, 양병찬, 강수현(2016), 서용선 외(2015), 이희수 외(2016)가 학생, 교사 등 주체별 역할과 역량을 전반적으로 제시한 반면, 이 연구에서는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유형별로 주체, 주체 간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의의를 지닌다. 즉 주체를 주된 운영주체와 그 외 물적, 인적 자원을 지원하는 지원주체로 구분하고, 주체들 간의 상호협력력을 위한 ‘공유된(Shared) 역할’을 제시하였다. 이는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모델별로 요구되는 주체들이 누구이며, 개별 주체들의 역할을 넘어 상호 주체들 간에 어떠한 협력이 필요하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활성화 방안 수립 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제언

이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정책 및 현장의 실천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유형을 기반으로 마을 특성을 반영한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도입·운영이 필요하다. 마을마다 인프라의 특성, 문화, 신념, 구성원 등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마을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이 연구에서 도출한 세 가지 유형은 진로교육 마을공동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에 가이드라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진로교육 마을공동체를 도입 및 활성화하는 마을은 이 연구에서 도출한 유형을 기반으로 하되 마을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모든 유형에서 역할이 강조되는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단위 학교 주도형에서 센터는 교육(지원)청과 단위학교를 매개하는 역할 및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역할이다. 진로체험지원센터 주도형은 진로체험지원센터가 그 마을의 진로교육 거점이 되며, 마을교육협의체 주도형은 마을교육활동가를 육성하고 마을 내 진로교육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지역 간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지역 및 마을의 행·재정 지원 및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마을교육협의체 주도형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우수 기관 및 마을교육활동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마을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한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사업 공모 제도 마련 및 사업 발굴을 검토하여 마을이 중심이 될 수 있고 운영의 질적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마을교육협의체 주도형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사업 공모제 운영 사례 조사, 교육부와 제도의 목적, 필요성, 내용, 기대효과 및 예산 범위 등을

논의하고 시범 운영 및 운영 결과 모니터링 등을 하여 마을의 역할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첫째,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유형별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를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유형별 프로그램 가이드북 제작으로 연계하여, 인적, 물적 자원 지원이 열악한 마을의 진로교육 마을공동체에게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내용,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및 마을 공백 없이 진로교육 마을공동체가 도입, 운영 및 지속 발전하는데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진로교육 마을활동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멘토링, 코칭 등의 프로그램 개발 연구자가 필요하다. 진로교육 마을공동체는 낮은 인식과 재정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부 마을주민의 자생적인 열정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진로교육 마을공동체의 인식 제고, 진로교육 마을활동가의 역할을 인지하고, 우수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코칭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 단위의 다양한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사례 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국내 다양한 지역의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사례조사 및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유형 및 모델을 개발하였으나, 진로교육 마을공동체는 지역 및 마을의 인적, 물적 현황에 따라 목적, 주체, 역할, 주요 성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연구 결과를 전체 지역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국내·외 다양한 지역의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사례 연구를 통해 차별화된 성공모델들을 발굴한다면 더 풍부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곽현근. (2018).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한 읍·면·동 공동체 허브로서 주민자치회 역할. 월간 주민자치, 77, 14-17.
- 교육부. (2018). 관계부처 합동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세종: 교육부.
- 김봉환, 정철영, 김병석. (2006). 학교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 김영철, 강영택, 김용련, 조용순, 이병곤. (2016). 마을교육공동체 해외 사례 조사와 정책 방향 연구. 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 김영철, 임진철, 장슬기. (2017). 미래사회의 마을교육공동체 발전방향. 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 김용련. (2015). 지역사회 기반 교육공동체 구축 원리에 대한 탐색적 접근: 복잡성 과학, 사회적 자본, 교육거버넌스 원리 적용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3(2), 259-287.
- 김재철, 변강훈, 황상윤, 이신행, 조규태, 원국희, 하경환. (2018). [토론] “주민세, 마을자치공동체 목적예산으로 법제화 필요” 외. 월간 주민자치, 81, 94-101.
- 김주원. (2016). 마을공동체역량진단과 지원체계구축방안. 춘천: 강원발전연구원.
- 박병춘. (2012).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모형 및 기본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0(2), 1-26.
- 박병춘. (2012). 지역공동체 성공요인 및 정책적 시사점. 지역사회연구, 20(4), 1-26.
- 박부권. (2002). 청소년 자아 변화와 그 교육적 함의-시장과 인터넷의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2, 93-114.
- 변미리. (2011).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SDI 정책리포트, 103, 1-19.
- 서용선, 김용련, 임경수, 홍섭근, 최갑규, 최탁. (2015). 마을교육공동체 개념 정립과 정책 방향 수립 연구. 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 서유정, 김수원, 박천수, 정윤경. (2016). 진로교육법 체제에서 진로교육 추진 현황과 과제.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송두범, 양병찬, 강수현. (2016). 충청남도 마을교육공동체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공주: 충남연구원.
- 양병찬. (2018).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 지자체 역할과 방향. 제2차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포럼 자료집.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양준호, 최길재, 최선경, 박경수, 양지혜, 강철구. (2016). 학교와 지역간 마을공동체 형성 방안 연구. 인천: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교육정책연구소.
- 오혁진. (2006). 지역공동체 평생교육의 개념과 성격에 관한 고찰. 평생교육학연구, 12, 53-80.
- 윤혜정, 김희수. (2019). 활동이론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분석. 교육연구, 41(1), 105-123.
- 이희수, 임경수, 백미현, 김종선, 배현순, 김해곤, 이효영. (2016).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한 학교와 마을간 상호협력체제 구성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전대욱, 박승규, 최인수. (2012).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 연구. 강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정철영, 임효신, 윤여복, 임정훈, 이영광. (2017). 서울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센터 설치·운영 방안 연구.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 정철영. (2017). 미래 진로교육의 패러다임. *한국진로교육학회 2017년 추계학술대회*, 1-21.
- 조영재, 윤정미, 유학열, 박경철, 이관률, 엄성준, 김정하. (2013). 과소화·고령화에 대응한 ‘한계마을정책’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공주: 충남발전연구원.
- 최병두. (2003). 신제국주의, 미국의 신안보전략, 그리고 동아시아의 미래. *대한지리학회지*, 38(6), 887-905.
- 최지인. (2017). 마을교육공동체의 운영 현황 및 개선 과제. *이슈와 논점*. 제1269호.
- 하현상, 이기태. (2017). 마을공동체 성과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중앙정부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1(2), 421-459.
- 한규호. (2009). 지역발전 모델 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7(1), 1-33.
- 한국교육학회교육평가연구회. (1995). *교육 측정·평가·연구 통계 용어사전*. 서울: 중앙교육진흥연구소.
- 한준상, 강현두, 김명희, 김성동, 이건남, 이길상, 이명진, 조난심, 한세억. (2003). *지역공동체 문화발전론*. 원미사.
- 행정안전부. (2017). *지역공동체의 이해와 활성화*. 세종: 행정안전부.
- 행정자치부. (2013).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길라잡이*. 서울: 행정자치부.
- 홍영란, 백승주, 현영섭, 홍성호, 김용련, 권두승, 전보미. (2018).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전략*.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 Brown, D. (2016). *Career Information Career Counseling and Career Development*. London: Pearson.
- Creswell, J. W. (2010). Mapping the developing landscape of mixed methods research. *SAGE handbook of mixed methods in social & behavioral research 2*, 45-68.
- Dalkey, N. C. (1972). The Delphi method: An experimental study of group opinion. In N.C. Dalkey, D. L. Rourke, R. Lewis, & D. Snyder (Eds.). *Studies in the quality of life: Delphi and decision-making*.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 Hillery G. H.(1955). Definition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0, 111-123.
- Lent, R. W., & Brown, S. D. (2013). Understanding and facilitating career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2, 1-26.
- Sanders, I. T. (1970). The concept of community development. *Community development as a process*, 9-31.
- Sergiovanni, T. J. (1992). *School as community implications for leadership*. In II Congreso Interuniversitario de Organización Escolar. Cultura escolar y desarrollo organizativo (1992), p 231-246. Universidad de Sevilla. Grupo de Investigación Didáctica.
- Sergiovanni, T. J. (1994). *Building community in schools*. San Fransisco, CA: Jossey-Bass.
- Watts, A. G. (2009). *The Relationship of Career Guidance to VET*. Paris: OECD.

■ 최초접수일: 2020년 4월 29일

■ 논문심사일:

– 1차 외부심사일: 2020년 8월 11일~20일

– 2차 편집위심사일: 2020년 8월 28일

■ 게재확정일: 2020년 9월 17일

Abstract

Categorizing the Village Community for Career Education

Jinchul, Jeong* · Wooseok Seo** · Sohyun Im*** ·
Boram Park* · Yeonggwang Lee* · Chaerin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Seoul 50 Plus Found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and categorize the concept of career education village community.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various cases of career education village community were selected and analyzed, and Delphi was conducted on the draft type of career education village community according to the leading entity. There were six draft types of career education village communities for each leading subject, but finally three types were derived according to the first Delphi result.

The summary of the research results is as follows. First, the definition of the career education village community was derived through conceptual analysis related to the career education village community. Second, as a result of in-depth interviews on the case of career education village community, three types of career education village community were derived, depending on the leading entity: 1) School-focused model 2) Career Center-focused model, and 3) Village Education Council-focused model

Based on the three types derived from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d operate a career education village community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village. In addition, the support of the Career Center should be reinforced to reduce deviations in villages, strengthen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for regions and villages, and establish a legal basis. Lastly, a plan for the management of a career education village community should be prepared so that it can continue to develop.

※ Key words: Career Education Village Community, School-focused Type, Career Center-focused Type, Village Education Council-focused Type, Study on Typology